

서울, 85억 투입해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도시' 도약 본격화

'2026 마이스 육성계획' 발표
국제회의·인센티브 관광유치 강화
최대 2억8000만원 인센티브 지원
'애프터 비즈니스'로 블레저 확대

서울시가 11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MICE) 도시' 위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마신러닝 컨퍼런스와 세계폐암학회 종회 등 대형 국제행사를 발관으로 올해 85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비즈니스 도시' 도약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5일 세계를 선도하는 마이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과 견인을 목표로 '2026년 서울 마이스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부터는 마이스 참가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동반한 일반 출장자까지 타겟을 확장한 블레저 관광 확대 '서울 마이스플라자' 워케이션센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와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시'로 전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제협회연합(UIA) 기준 2024



서울마이스얼라이언스.

과 특별 지원도 병행한다.

대표 전시회·국제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본격화한다. 서울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전시회는 최대 8000만원·직간접적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 참관객 성장률을 주요 평가 지표로 반영해 국제화를 촉진한다.

또한 서울 기관 국제회의(S-BIC)를 발굴, 육성해 서울에서 고정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판 CES', '서울판 다보스포럼' 같은 글로벌 대표 마이스 브랜드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시는 또 마이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를 포함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예산 및 인센티브 설계, 정책 개선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비즈니스 방문객 체류 연장과 소비 확장을 위한 블레저(Bleisure, 비즈니스+레저) 전략의 일환으로 '서울, 애프터 비즈니스(SEOUL, After Business)' 프로그램을 도입, 도시 경험의 설계 단계부터 반영한다.

지난해 10월, 강서구 마곡동에 문을 연 '서울 마이스플라자'는 올해부터 '서울워케이션(Work+Vacation) 센터' 기능을 추가해 장기체류 비즈니스 관광객을 정밀 공략키로 했다. 또 마곡 R&D·의료 클러스터, 김포공항 접근성과 연계

해 해외 바이어 미팅, 기술 데모데이, 글로벌 임원 라운드테이블 등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의 폭도 넓힌다. 관광·마이스 기업지원센터 상담 분야를 특허, 투자, 홍보 등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마이스 운영 표준인 '서울형 마이스 ESG 2.0' 가이드라인을 정책 전반에 적용한다.

시는 또 마이스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효과를 포함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 실태조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예산 및 인센티브 설계, 정책 개선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명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이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유망 분야이다. 핵심 산업"이라며 "비즈니스 관광객이 일과 휴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 '서울'을 세계인이 가장 먼저 찾고 싶어 하는 '글로벌 넘버원 마이스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연세대 미래·한양대 ERICA 교원양성 폐지

교육부,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E등급 3곳 기능 폐지, 총 3000명 감원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ERICA, 협성대가 2027학년도부터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된다. 서울시립대, 전남대, 수원대 등 22개 대학은 교원양성 정원의 50%가 줄어든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5일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 결과는 2027학년도 교원양성 정원 조정에 반영된다.

이번 진단에서 일반대 교직과정에서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양대 ERICA, 협성대가 E등급을 받아 폐지 대상이 됐다. 서울시립대, 수원대, 우석대, 전남대와 함께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충남대 등은 D등급으로 정원의 절반이 감축된다.

등급별 조치 기준에 따라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되고, D등급은 정원의 50%, C등급은 30%가 감축된다.

A등급과 B등급은 모두 정원 감축 대상은 아니지만 평가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 A등급 대학은 우수 사례 확산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B등급 대학은 지표 보완과 컨설팅 중심의 후속 관리가 이뤄진다.

사범대학 부문에서는 A등급에 건국대, 고려대, 상명대, 서울대, 성신여대, 인하대, 동국대 등 27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B등급에는 경북대, 성결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18개 사범대학이 포함됐다. 사범대학 부문에서는 C·D·E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은 없었다.

일반대 교육과에서는 일반대 교육과에서는 A등급에 덕성여대, 순천향대, 삼육대, 호서대 등 49개 학과, B등급에 가

천대, 경기대, 안양대 등 36개 학과가 포함됐다. 광신대 유아교육과, 동국대 WISE 수학교육과 등 4개 학과는 C등급을 받았다. 이 부문에서도 D·E등급을 받은 학과는 없었다.

교육대학원 부문에서는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등 7개 대학이 A등급, 경희대, 국민대 등 29개 대학이 B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27개교, D등급은 부산외대와 울산대 등 2개교로 나타났으며 E등급은 없었다.

1급 양성과정 부문에서는 대진대가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고, B등급 17개교, C등급 16개교, D등급 9개교로 분류됐다. 이 유형에서도 E등급은 발생하지 않았다.

교육대학(교대) 부문에서는 제주대가 A등급을 받았다. 다른 교육대학은 2024년 별도 진단을 받아 이번 결과에는 제주대만 포함됐다.

/이현진 기자

상명대-단눈치오대, 한국어 교육 활성화

키에티 현지서 협정 체결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는 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이탈리아 키에티에서 단눈치오 키에티 폐스카라 대학(d'Annunzio Chieti-Pescara University)과 한국어 교육에 관한 상호 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단눈치오대학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종희 상명대 총장, 이준영 대외협력처장, 김태한 교무처장, 김지현 문화예술대학장, 박경락 총장실 팀장, 이태희 대외협력팀 과장이 참석했다. 단눈치오대학에서는 리보리오 스투피

아(Liborio Stuppa) 총장, 피에르루이지 싸코(Pier Luigi Sacco) 국제관계부 총장, 마르셀로 코스탄티니(Marcello Costantini) 애라스무스 부총장 등이 자리했다.

양 대학은 협약을 통해 상명대 국제언어문화교육원의 단눈치오대 분원 설치, 한국어 강사 파견, 한국어 교재 개발 등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2026학년도부터 공동 썸머스쿨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명대가 친환경 도시 건축과 경영경제학 분야 커리큘럼을 설계해 단눈치오대학에 제안하고, 올여름 약



이탈리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김종희 상명대 총장(오른쪽)과 단눈치오 대학 리보리오 스투피아(Liborio Stuppa) 총장(왼쪽).

20명의 단눈치오대학 학생이 상명대에 파견돼 수업을 듣는 방식이다.

/이현진 기자

양주 장흥~광적 '부곡터널' 먼저 연다

국지도 39호선 1.0km 구간 6일 개통

경기도는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석현리를 잇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구간 가운데 부곡터널(332m)을 포함한 1.0km 구간을 6일 우선 개통한다. 이번 부분 개통은 전체 공사 완료전이지만 부곡터널만이라도 우선 개

방해 기존 고비골 고갯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도로이용전 사전 점검을 통해 과속 방지턱, 중앙분리대 등을 보완 설치했다.

개통 구간은 홍주산업단지를 비롯한

검준·은남산업단지 등 양주 서북부 지역 산업 현장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잇는 핵심 간선이다. 터널 개통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이동시간이 2분 줄었으며, 물류·통행 차량의 사고 위험률을 낮출 수 있고, 운송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구불구불한 길이 직선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와 기산 저수지 등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등 주민 교통 편의 향상과 관광 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